

# “科總을 求心點으로 衆智를

## — 우리나라 科學技術의 振興과 革新은 물론



李 台 燮 장관

존경하는 趙完圭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과학기술계 元老 先輩님과 代議員 여러분.

오늘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제22회 定期總會에서 평소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振興 暢達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께 激勵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지난 20여년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學術活動을 통한 우리나라 科學技術의

진흥과 혁신은 물론 國民生活의 科學化運動을 통하여 國家社會 發展에 크게 기여해 온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科學技術人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에 우리는 이른바 3低의 好機를 맞아 12%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율을 기록하였고, 技術革新에 바탕을 둔 高附加價值商品의 수출호조로 45억불이라는 建國이래 初有의 國際収支黑字를 달성하는 등 우리 경제에 있어서 一大轉機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經濟의 성장배경에는 科學技術人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政府·產業界의 상호협조가 크게 뒷받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전반적인 技術水準이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은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半導體 등 일부 기술분야에서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최근 活性化되고 있는 科學技術研究活動과 우리의 축적된 잠재력을 감안 한다면 멀지 않아 우리도 先進技術의 진입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科學技術人 여러분.

올해 우리는 “2000년대를 향한 科學技術

# 모아 國民의 기대에 副應해야”

## 國民生活 科學化運動을 통해 國家社會發展에 크게 寄與 하기를

發展長期計劃”을 실천에 옮기는 첫 해 이자 '80년대 후반과 '90년대를 잇는 중요한 轉換點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政府에서는 지난 年初 新年 朝餐會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는 올해의 施策方向으로,

첫째, 公共部門의 科學技術投資를 증대하고 民間의 자율적 투자를 촉진하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둘째, 科學技術革新의 主役이 될 창의적 科學頭腦와 精銳技術人力의 양성에 계속 注力하는 한편 基礎研究育成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셋째, 분산 다기화 되기 쉬운 과학기술 관련 政策과 각종 제도 등을 과학 기술혁신의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整備·改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世界 各國은 저마다 技術優位를 확보하기 위하여 尖端技術開發에 심혈을 기울이는 동시에 개발된 自國技術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무역장벽 못지 않는 기술장벽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부터 施行되는 物質特許制度에 대비하여 새로운 기술개발을 가속화 해 나가는데 우리 모든 科學인들이 합심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創立 22周年을 맞으면서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이제 成年의 위치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기술혁신의 도약기를 맞이했다고 하겠습니다.

全國의 科學技術인들이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를 求心點으로 하여 서로 협력하고 충지를 모음으로써 科學技術人에 거는 온 國民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각자의 역량을 最大限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지난 3년동안 科學技術團體의 육성과 科學技術人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많은 수고를 해오신 趙完圭 회장님과 任職員 여러분의 勞苦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新任 朴泰源 회장님에게도 커다란 기대를 걸면서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와 여러 會員團體의 무궁한 발전과 科學技術人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衷心으로 祈願합니다.

감사합니다.

1987년 2월 20일

科學技術處 長官 李 台 燮